

신안군, 시금치·대파 특구 지정 연장

섬 특산물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시설 확충·연구개발·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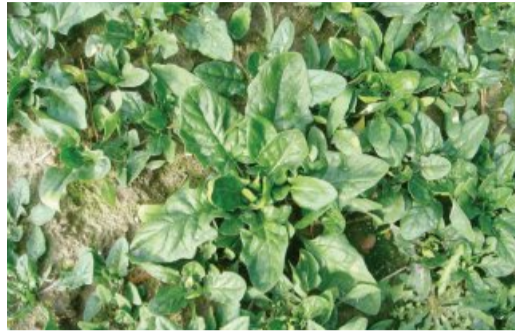
신안군이 지역 특산물인 시금치와 대파의 특구 지정 연장 승인을 이끌어 내는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 성과를 거뒀다.

신안군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금치·대파산업 특구 지정 기간이 당초 2017~2021년에서 2017~2024년으로 3년 연장·승인됐다고 밝혔다.

군은 특구 연장을 계기로 관련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시설확충과 연구개발은 물론 농업인의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안군의 시금치는 '섬초'라는 브랜드로 출하되며, 잎이 넓고 두꺼워 일반 시금치보다 품질과 맛이 좋아 인기가 높다.

신안군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대파의 최대 주산지다. 갯벌과 모래가 많은 다도해 신안 해풍을 맞고 자라 흰색 부분인 연백부가 길고 굵은



것이 특징이며, 달콤하고 알싸한 맛이 매력이다. 두 작물은 농한기 최고의 소득작물로 작업 기간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유휴 노동력이 많이 활용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효자작물이다.



연장 승인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력 증대사업, 가공·유통 활성화 및 품질 경쟁력 강화사업, 체험관광 마케팅 및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시금치·대파 산업 특구 기간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시 공동주택 환경개선 추진

20세대 이상 211개 단지...오수관 준설·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

목포시가 2022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다.

목포시는 인구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20세대 이상 211개 공동주택 단지다.

지원 항목은 신규사업인 오수관 준설지원 사업을 포함해 보안등 전기료 지원, 공용시설물 개보

수 지원,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전자투표 지원 등이다.

시는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지원 사업별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신청서류를 구비해 목포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현장 조사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최종 결정한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암군, 벼 재배 농가에 육묘용 상토 공급

21일까지 0.1ha 이상 농가

영암군이 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0.1ha 이상 벼 경작하는 농가로, 사업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2021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으로 관내 7365명 농가에 상토 규격 40ℓ 기준으로 약 32만포를 공급했으며 총사업비 약 19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은 상토 20ℓ 1

포당 2600원, 40ℓ 1포당 4900원 지원하는 등 규격별로 지원 단가를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도 상향해 벼 재배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군은 본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난 10일 지역 농업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영암군 관계자는 "2022년에 상토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접수 기간이 예년보다 짧지만, 더 빠르게 상토 공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많은 농가분들께서 본 사업을 신청해 1년 농사의 시작을 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해남 우수영 관광지 365일 열어요”

군, 명랑해상케이블카 등 인기...관광객 3배 증가에 명랑대첩해전사 전시관 등 연중 무휴

해남 우수영 관광지가 365일 연중 열린다.

해남군은 우수영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쉬는 날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우수영 관광지는 명랑대첩해전사 전시관 등 시설에 대해 매주 월요일 휴무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울돌목 스카이워크와 명랑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연말 기준 우수영 관광지 입장객이 4만 2710명을 기록하는 등 전년도 같은 기간 1만 4913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휴무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자로 운영되고 있는 명랑해상케이블카도 유료 탑승객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침체에도 우수영 관광지는 활기를 띠고 있다.

또 최근 우수영 문화마을 법정스님 생가에 마을 도서관이 임시 개관하는 새로운 관광지가 늘었다.

해남군 관계자는 “우수영 관광지 연중 운영이 관광객들의 편의와 우수영 관광지 활성화를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우수영 관광지 전경.

<해남군 제공>

목포고용청 “설 명절 임금체불 꼼짝마”

30일까지 집중 지도...휴일·야간에도 신속 대응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오는 30일까지 '설 임금체불 예방·정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체불 청산기동반을 편성,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비상 근무 중인 근로감독관은 휴일과 야간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공건설 현장 19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을 안내한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발주처에서 받은 공사대금 중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 등은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한인권 목포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힘든 시기에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강소농 농업경영체’ 모집

내달 11일까지...교육·경영 컨설팅 등 지원

영광군이 농업경영체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도 '강소농'을 모집한다.

강소농이란 작은 규모가 가지고 있는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체간 협력을 통해 경영개선을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11년째 소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 경영 컨설팅, 자율소모임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규 강소농 18명을 선발해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등의 단계별 교육을 진행했다.

기존 강소농을 대상으로 브랜드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경영체별 특색 있는 10개의 브랜드를 개발했으며 그중 9개의 경영체는 특허출원까지 완료했다.

강소농 자율모임체 중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임체 2개소를 선정해 맞춤형 교육도 지원했다.

올해 신규 모집인원은 10명 내외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다음달 11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달 중 실시



되는 기본교육을 수료해야 강소농 경영체로 최종 선정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단계별로 차별화된 농가경영개선 교육을 통해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농업에 열정이 있는 젊은 농업인들이 강소농으로 많이 참여해 군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준호 기자 jylee@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